

# 전주 마을 문화자원 홍보 콘텐츠 공모

전주문화재단, '놀면 뭐하니? 전주 마을 뽐내봐!' 공모전 10월 14일까지 접수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전주의 마을들이 보유한 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놀면 뭐하니? 전주 마을 뽐내봐!'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전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마을조사서, 동심찾기'를 활용해 전주시의 각 동을 홍보하고 마을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함이다. '마을조사서, 동심찾기'는 전주 35개동의 문화자원과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결과물이다.

'놀면 뭐하니? 전주 마을 뽐내봐!' 공모전은 '마을조사서, 동심찾기'에 언급된 키워드(장소, 인물, 전설, 이야기 등)를 활용해 ▲내가 사는 동 문화자원, 인물, 장소 ▲현재 사라진 장소에 대한 흔적 ▲과거 추억이 담긴 장소 ▲내가 사랑하는, 알리고 싶은 전주의 명소 홍보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영상 콘텐츠(60~100초 분량)와 이미지 콘텐츠(카드뉴스, 네컷만화, 디카시)

등 두 개 부문이며, 응모 수는 제한이 없다.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하며, 대상 100만 원 등 총 270만 원의 상금이 전주시당상품권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23일 '2021 전주 마을동심박람회' 기간에 진행된다. 수상작은 박람회 기간 내 전시 및 상영되며, 이후에도 전주문화재단의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전주 마을 홍보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주 곳곳의 문화자원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지길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주만의 이야기를 담은 특색 있는 작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www.j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담당자(070-7711-37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재)전주문화재단은 '놀면 뭐하니? 전주 마을 뽐내봐!'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 남원시,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선정

3년 연속 5개 분야

남원시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3년 연속 5개 분야(총사업비 7억 5750만원)에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향교·서원 문화재, 문화재 야행, 생생 문화재,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총 5건이며, 이들 사업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설지원이 아닌 순수한 문화재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들은 남원시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년부터 9년 연속으로 선정된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사업비 8000만원)은 남원향교를 활용한 '향교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라는 주제로 향교를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정동의 즐거움과 새로움의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2018년, 2020년 두 차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7000만원)은 '실상사 천년의 향기'라는 주제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교육·답사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재 야행 광한루의 밤풍경'이라는 주제로 야경·야로·야화 등 8개의 야간문화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는 문화재 야행(3억 9500만원)과, 운봉고원의 황산대첩비, 판소리 동편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 일원에서 '운봉고원 왕조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기획한 생생 문화재사업(5000만원) 및 남원 명심재를 중심으로 죽산박씨 종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고택·종가집에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고택·종가집 활용사업(1억 6250만원) 등 3개 사업은 3년 연속 선정됐다.

박승용 문화예술과장은 "공모한 사업이 3년 연속 선정되어 남원의 문화유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으며,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읍 태인 출신 서예가 '몽련 김진민' 관련 유물 전시

정읍시립박물관, 12월 12일까지 낙지론 10폭 병풍 등 14건 16점 공개

정읍시립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정읍 태인 출신인 서예가 '몽련 김진민(1912~1991)'의 관련 유물을 공개 전시한다. 정읍시립박물관 1층 2전시실에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김진민이 21세(1933년)에 쓴 낙지론(樂志論) 10폭 병풍 등 14건 16점이 공개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해서 몽련 김진민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번 공개전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했다.

김진민의 낙지론은 '즐겁게 큰 뜻을 실행하는 방법론'이라는 의미로 중국 후한시대 학자 중장통(仲長統, 179~220)의 명시 10폭 병풍이다.

평생 서예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온 서예가이자 서예 학자인 전북대학교 김병기 명예교수는 이 작품에 대해 "10폭이나 되는 대작으로서 김진민 서예의 특색과 다양한 결구 그리고 전체적인 어울림인 장법의 구성까지 전부 볼 수 있는 대표작 중의 대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과 대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김진민의 서예 작품을 비롯해 조선미술전람회 4회(1925년)·8회(1929년) 때 받은 4등 상과 특선 상장, 김진민 서예 작품이 실린 조선미술전람회 도록(7~9회, 10회)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진민이 쓴 낙지론 10폭 병풍.

다. 김진민은 1912년 정읍 태인면에서 가산(迦山) 김수곤(金水坤)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9세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서예가 김돈희(金敦熙)에게 글씨를 배웠는데, 11세에 전남 영광 불갑사의 '불갑사(佛甲寺)', 장성 백양사의 '우화루(雨花樓)' 편액 글씨를 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실력이 뛰어났다.

12세이던 1924년에 제 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최연소로 입선하면서 서예가로서 이름을 알렸다. 1931년까지 발표한 총 16점의 작품 중에서 5점이 특선을 차지할 정도로 촉망받은 서예가였다.

현재 김진민의 글씨는 정읍 정토사의 '칠성각(七層閣)' 현판과 주연, 김계 금산사 미륵전의 '대자보전(大慈寶殿)', 완주 위봉사의 '나

한전(羅漢殿)', 충남 예산 정혜사의 '관음전(觀音殿)', 서울 국립묘지 내 지장사의 '능인보전(能仁寶殿)', 정읍 내장사 부도전의 '학명선사시리탑명(鶴鳴禪師舍利塔銘)' 등 여러 사찰의 편액과 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매년 시는 정읍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을 수집해 전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 인물을 널리 알려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이고 정읍 역사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휴관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유물 기증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왕의지밀, 업무협약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4일 재단 회의실에서 왕의지밀 유한회사 제이휴비엔비(이하 왕의지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전 대표이사과 왕의지밀 손의준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하며, 실

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공연상품-숙박권 결합 상품 기획 및 판매, ▲상호 할인 제공 및 홍보 진행 ▲유니크 배너 등 연계 공연 사업 협조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한벽문화관 '토닥토닥 힐링콘서트'

클래식 음악회인 '토닥토닥 힐링콘서트'가 오는 10월 6일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토닥토닥 힐링콘서트'는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전주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을 협력·유치해 금관양상블, 판소리, 테너 솔로 등 풍성한 가을 공연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금관양상블은 Best of Classics으로 공연의 문을 열고 Bolero(Amazing grace & Arirang), Nice Pop Medley, 영화 OST인 오페라의 유령 '더 팬텀 오브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와 1492 콜럼버스의 '낙원의 정복'(The Conquest of Paradise)을 선보인다.

또 전주시립국악단 판소리 수석 '김민영'이 영화 '왕의 남자' OST로 유명한 이선희의 '인



연과 국악가요 '아름다운 나라'를 풍부한 감

성으로 노래하고, 전주시립합창단 상임 단원인 테너 '신상권'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대표곡 '지금 이 순간'(This is the moment)과 이탈리아 가곡 '푸니쿨라 푸니쿨라'(Funiculi Funicula)로 대중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성영근 관장은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시민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역할이라 생각해 전주시립예술단과 함께 뜻깊은 음악회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음악회가 시민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그간 목말랐던 문화감동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닥토닥 힐링콘서트'는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130석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우천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리며, 전석 무료다.

예약은 전주문화재단 콘텐츠사업팀(063-280-704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장수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민화반 수강생들, 전국 벽골미술대전 수상

한국미술협회 김계지부 주관으로 치러진 제 22회 전국 벽골미술대전 민화부문에서 장수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민화반 수강생들이 다수 수상 소식을 전했다.

장려상에는 이윤경, 정유진씨, 특선에는 이숙희, 유영미, 정서영, 이지민, 이옥이씨, 그리고 서인애씨가 입선을 수상했다. 이번 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민화

부분으로 전국 각지에서 작품들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벌였다.

장수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민화반은 2018년도 개설 이래 작가 이선희와 강사의 지도 아래 수강생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벽골미술대전(우수상, 특선, 입상),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장려상) 등 각종 공모전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정수=고관호 기자

#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김순영 개인전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도내 시각분야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해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전시를 진행하는 김순영 작가의 작품관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과 마주한다'다. 김순영 작가의 개인전은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전시장 돔방에서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린다. /정은성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판촉물  
기념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안전화  
안전용품

명찰, 로고  
각종 인쇄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